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VOYEUR

가제 : 파도의 춤

저자 : Francesca Reece

출판사: Tinder Press

발행일: 2021년 여름 예정

분량 : 282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데뷔 단편 소설로 2019 년 'Desperate Literature Prize'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의 첫 장편 소설
*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화된 남성적 시선, 계급 구조의 모순, 인간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관해 들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 틴더 프레스 편집자, 에이미 퍼킨스

이십 대 중반에 접어든 레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파리로 왔다. 그 무렵 런던에 살고 있던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에 레아는 충동적으로 한 작가의 조수로 일하는 파트 타임 업무에 지원했다. 과연 레아는 그녀가 바라던 대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까?

2016년 파리, 당시 레아는 매일 습관처럼 정처 없이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곤 했다. 대학을 졸업한지는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황 중이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레아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서 나와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우울한 표정의 남자들과 함께 높은 빌딩을 가로지르는 엘레베이터에 탔다. 그 속에서 레아는 종종 남자들과 눈 인사를 주고 받거나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때마다 레아는 그들이 아직 학생처럼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젊음을 동경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저런 볼품없어 보이는 여자애가 이런 고층 빌딩에 들어왔는지 하고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파리를 방황하던 레아는 우연히 한 작가가 자신의 새 소설을 구상하기 위한 자료 조사와 사료 정리를 맡아 줄 어시스턴트를 구하고 있다는 한 영문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레아는 심장이 쿵쾅대는 것을 느꼈다. 이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레아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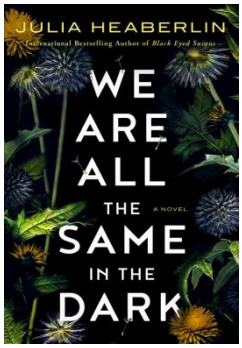
마침내 레아는 고민 끝에 구인 광고를 낸 '마이클'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여자는 레아에게 이미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기로 정해졌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레아의 운명은 레아가 생각한 것과 달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레아는 어느 날 친구 엠마의 부탁으로 그녀와 함께 '애나 영'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한 신문사인 가디언의 자료를 모아 아카이빙 전시를 여는 행사에 가게 되었는데 애나 영은 다름 아닌 구인 광고를 낸 마이클 영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한편 전시장에서 마이클은 레아가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이클은 곧 한때 그의 뮤즈였던 아스트리드를 떠올리며 과거에 대한 회상에 젖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의 조명까지 마치 1968년 그 어느 날의 빛과 똑같은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이클은 홀린 듯이 레아에게 다가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레아의 어깨를 잡았다. 레아는 낯선 이의 손길에 놀란 듯 하긴 했지만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때 그의 아내인 애나가 다가왔고 세 사람은 얼떨결에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마이클은 애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이 다시 레아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이것저것을 물었고 레아가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게 후 그녀에게 자신의 어시스턴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레아는 그제서야 그가 바로 그 구인 광고를 낸 사람이자, 작가라는 것을 깨닫고 전에 있었던 실망스러운 통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레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아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나 역시 겨우 첫 만남이긴 했지만 자신의 딸 또래인 레아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속내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애나는 자신의 뜻대로 굴지 않는 딸 대신 레아에게 딸에 대한 애정을 대신 쏟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다. 또한 레아는 마이클이 한 때는 문학계의 젊은 샛별로 잘나가는 스타 작가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레아야말로 자신을 도와줄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레아에게 그가 오래 전에 써두었던 일기장을 주면서 읽어 볼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레아는 마이클의 가족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초호화 저택에서 머물게 되었다. 레아는 그의 일기를 읽으면서 60년대 말 옥스포드와 런던에서 지내며 마이클이 얼마나 흥미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고 그의 뮤즈였던 아스트리드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일기에는 그 둘이 당시 군사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아테네에서 햇볕에 취해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스트리드는 마이클의 삶에서 사라지고 말았고 레아는 마이클과 친구들이 아스트리드와 얽힌 진실을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욕망, 힘 및 우리 안에 내면화 된 남성적 시선, 계급, 기억에 관한 흥미진진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프란체스카 리스 (Francesca Reece)는 킹스 칼리지 런던과 소르본 대학에서 불어와 영문학을 전공했다. 현재 파리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으며 단편 소설 『So Long Sarajevo / They Miss You So Badly』로 2019 년 'Desperate Literature Prize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소설은 그녀의 첫 장편 소설이다.



제목 : WE ARE ALL THE SAME IN THE DARK

가제 : 어둠 속에 서면 누구나

저자 : Julia Heaberlin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20년 8월 6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Black-Eyed Susans』저자의 신작**

***"강렬한 인물들과,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 한 공간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 돋보이는 소설"-「가디언」**

'트루머넬 브랜슨' 이름의 예쁜 소녀가 사라진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돌담, 경찰서 및 학교 벽에는 트루머넬을 찾고 있는 실종 전단지들이 붙어있었다. 트루머넬이 사라진 현장에는 피가 묻은 손자국뿐이었다. 한편 트루머넬의 오빠 와트는 우연히 버려진 또 다른 한 소녀를 알게 된다. 두 소녀들에게 각각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와트는 처음 운전을 하다가 그 이상한 물체를 보았을 때, 그저 어디를 심하게 다친 개나 혹은 다른 동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물체의 정체는 열두 살 정도 되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진드기가 들끓는 도로 옆 철조망 뒤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뜨거운 여름 텍사스의 거친 땅 위에 누워있었다. 게다가 눈 한쪽에는 마치 붕대를 감은 것처럼 금박이 박힌 스카프가 단단히 묶여있었다. 그 아이 역시 와트의 아버지처럼 눈 한쪽을 잃은 것 같았다. 와트는 소녀의 찢겨진 하얀 드레스와 몸 곳곳의 멍을 보며 소녀를 그냥 두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을지 생각하던 중 소녀가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와트는 소녀를 보며 자신의 여동생인 트루머넬을 떠올렸고 소녀의 존재를 일종의 계시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트럭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

트루머넬과 와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 되어있었다. 어머니마저 의문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자 트루머넬과 와트에겐 세상에 오직 서로 뿐이었다. 하지만 트루머넬이 열아홉 살이 되던 무렵 갑자기 트루머넬마저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트루머넬은 여전히 와트의 곁에 환영으로 나타나 끊임 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와드튼 순간 순간 트루머넬과 관련 된 기억을 떠올리곤 했는데 그 중에는 트루머넬과 함께 있다가 한 비명 소리를 들었던 날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트루머넬이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한 날이었다. 하지만 트루머넬과 와트의 엄마는 부검 조차 거치지 않고 그냥 화장 되어버렸다. 그 날 이후 트루머넬은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직접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트루머넬과 와트는 언제 엄마처럼 아빠한테 살해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 커튼 사이에 주머니를 만들어 비상시 필요할 칼과 같은 무기들을 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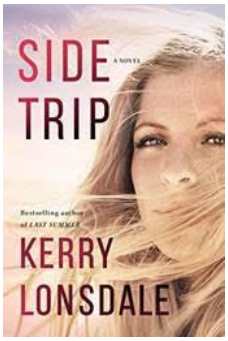
준비해두었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 트루넬은 지금도 역시 그 의문의 소녀를 경찰에 데려다 주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와트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와트는 소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될 때까진 소녀를 '앤젤'이라고 부르며 보살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형사인 오데트 터커 형사는 여전히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트루머넬이 사라졌던 그 날 오데트는 당시 남자 친구였던 와트의 집에 갔다가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와트의 집에 갔던 날 와트는 문을 열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집으로 어서 돌아가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트루머넬이 실종 사건이 알려졌고 그 사건을 진두지휘 했던 형사가 바로 오데트 형사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트루머넬의 아버지인 프랭크 브랜슨 역시 실종된 상태였고 경찰 측에서는 그를 제 1용의자로, 오빠인 와트를 제 2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하지만 핏자국이 발견된 농장 현장은 그 날 밤 갑자기 몰아 닥친 폭풍우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그와 함께 증거가 될만한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하나 같이 트루머넬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애쓰지 말라며 오데트를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년 전 다시 이 마을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돌아왔고 트루머넬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오데트가 형사가 된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끝까지 와트의 결백을 믿으며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트루머넬 사건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미제 사건 10주년을 기념으로 방영 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여전히 와트를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와트를 쫓아다니는 한 무리들도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최근에 마을 외곽 월마트에서 와트가 한 소녀를 데리고 나타나 소녀의 옷을 사주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다.

오데트는 그 소문의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주 오랜만에 와트를 찾아갔다. 오데트가 문을 두드리자 주머니에서 마침 총을 꺼내고 하고 있던 와트가 문을 열었고 방문자가 오데트임을 확인한 그는 총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이미 실종된지 10년이나 넘은 트루머넬에게 안부 인사를 하라며 오데트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문인 줄로만 알았던 그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분명 이 동네 아이도 아니었고 오데트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실종 아동 포스터에 있는 소녀들 중 한 명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데트는 생판 모르는 여자아이가 지금 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와트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와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이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도 역시 다 믿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와트처럼 그 소녀의 존재를 일종의 계시 삼아 소녀와 트루머넬의 실종 사건에 관련 된 진실을 함께 찾기로 한다. 와트는 정말 결백한 것일까? 어둡고 잔혹한 과거의 진실과 현재가 뒤엉켜 빚어내는 섬뜩한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해베를린 (Julia Heaberlin)은 전직 기자이자 타임즈와 USA 투데이 베스트 셀러였던 『Black-Eyed Susans』의 저자이다. 그녀의 전작들인 『Paper Ghosts』, 『Playing Dead』, 『Lie Stil』I 은 세계 열다섯 개국에 출판 된 바 있다.



제목 : SIDE TRIP

가제 : 뜻밖의 여행

저자 : Kerry Lonsdal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7월 7일

분량 : 358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월스트리트 저널,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

*** "똑똑하고, 섹시한데다 독자의 예상마저 뛰어넘는 소설" - 베스트 셀러 『I 'm Fine』의 저자 카밀 페이건**

조이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끔직한 실수를 했고 자기 때문에 언니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족은 물론 약혼자에게조차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매일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언니가 차마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조이는 그 고통을 달래고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 언니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더나 미국 횡단 여행길에 나섰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약혼자가 살고 있는 뉴욕이었다. 하지만 그 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이가 딜런을 만난 건 열흘 전이었다. 둘은 열흘 간 로드 트립을 함께 했고 지금은 그 여행을 마치고 딜런을 영국 행 비행기로 떠나 보낸 직후였다. 딜런은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였고 한 음반 회사까지 운영 중인 대단한 뮤지션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이는 다시는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없고, 그의 얼굴 조차 다시는 만져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리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딜런을 따라 함께 영국에 따라가기로 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딜런에겐 이미 보장된 화려한 미래가 있었고 조이 역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이 있었다. 특히 앞으로 조이가 일하게 될 화장품 회사는 세상을 떠난 언니 주디가 그토록 일하고 싶어했던 꿈의 직장이기도 했다. 조이는 눈물을 훔치며 공항을 떠나 두 달 전 조이에게 약혼 반지를 선물한 남자친구 마크가 기다리고 있는 맨하탄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비어 있는 조수석을 보니 조이는 문득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공허함과 애틋함에 사로잡혔고 동시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게다가 언니라면 분명히 다 계획대로 이루었을 버킷 리스트마저 자신은 다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미워졌다. 하지만 조이는 그 후 인생의 계획을 실현하느라 한동안은 딜런을 잊고 살았다.

열흘 전, 조이는 언니 주드의 버킷 리스트에 따라 66번 국보를 따라 이어지는 미국 횡단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 중 아리조나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처음으로 딜런을 보았다. 그는 아마도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식당 주차장에서 한참을 씨름 중인 것 같았고 조이는 자동차 창문 너머로 넋이 빠진 얼굴로 그런 그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았다. 그는 인디 밴드 록커 스타일에 몸매까지

완벽한 남자였고 긴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의 몸짓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얼마 후 그는 식당 직원에게 식당 전화를 쓸 수 있는지 물어 본 후 거절당했는지 실망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조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조이는 그의 미소에 홀려 거의 자동적으로 그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다. 조이는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살짝 엿들었고 덕분에 그가 지금 미국 전역의 바들을 돌며 공연 중인 뮤지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조이는 그에게 언니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며 언니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여행 중이며 목적지는 약혼자가 있는 뉴욕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도 어차피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처음 조이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주디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항목 중 하나인 '새 친구 만들기'기를 기꺼이 실행해보기로 했다. 딜런의 제안에 따라 기름 값을 할 돈을 받고 딜런이 공연하게 될 바들을 돌며 공통 목적지인 뉴욕까지 데려다 준 후 그곳에서 헤어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두 사람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둘만의 규칙이 있었다. 첫째는 조이의 이름 외의 성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 것, 둘째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조건 차에서 머물 것, 셋째는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획에 없던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분명 조이의 철두철미한 언니 주디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조이는 이미 자신과 그토록 미국 횡단 여행을 하고 싶어했던 마크 대신 낯선 남자와 만나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딜런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딜런은 조이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이름마저 이미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공연이 열린 바 근처에 방을 다 얻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왠지 편한 침실에서 자는 것보다 비좁고 답답한 차 안에서 조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 물론 그는 조이의 약혼자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조이를 그저 친구로만 생각하고 싶었지만 머리 속에서 그녀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함께 차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잠 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꽤나 보수적이게 보이는 조이는 사실 그의 이상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공연장소에 도착하자 자신을 내려주고 그냥 가버리는 조이를 바라보며 그는 조이와 잠시 떨어지는 것 조차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무대에 서자 다시 그 증상이 시작되는 바람에 악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연장으로 들어선 조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황마저 잊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 후 십 년간 둘은 평생 그 10일간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만약 그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될까? 음악과 낭만, 과거의 기억과 선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소개>

케리 론즈데일 (Kerry Lonsdale)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및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Last Summer』의 저자이며 전작으로는 『All the Breaking Waves』, 『the Everything series』이가 있다.

제목 : THE GIFTED SCHOOL

가제 : 엘리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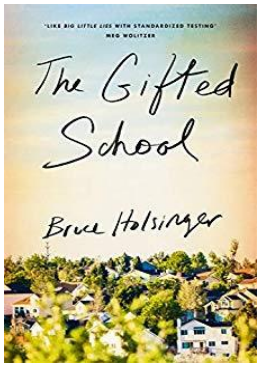
저자 : Bruce Holsinger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심리소설



*** "미국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을 미리 예견한듯한 소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로즈, 사만다, 아즈라, 로렌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우정을 지켜오고 있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들이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나이를 먹었고 죽음과 이혼 등 삶의 크고 작은 굴곡들과 기쁨까지 모두 함께 해왔다. 그들의 우정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탈 아카데미. 사람들은 그 학교를 '영재 학교'라고 불렀고 이 지역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버드, 스탠포드, 캠브리지, 소르본 등등 세계 최고 명문 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록키 마운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콜로라도 주 '크리스탈'이라는 곳에 세워질 예정이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 마을은 제 2 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고 있는 곳으로 교수, 외과 의사, 기업가 등 부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부모들의 교육 및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그들이 자식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야망 역시 어마어마 했는데 5 개의 지역 교육 위원회가 특별 영재 아동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그넷 스쿨 (magnet school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교과목에 대해 특수반을 운영하는 대도시 학교)를 이 지역에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중 로즈 켄트럴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도달한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인생에 한 가지 오점이 있다면 아무런 야망도 비전도 없는 남편 가레스와 책만 파고 있는 딸 엠마 Q 였다. 로즈는 그래도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름 부부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었다. 그런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친구들과의 오랜 우정뿐이었다.

11 월 둘째 주 목요일, 로즈는 영재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했고 아직 학교와 관련된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로즈는 벌써부터 불안감과 기대속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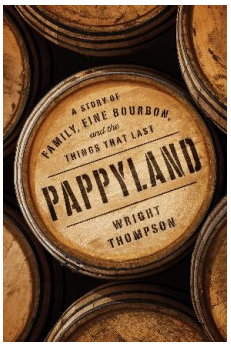
남편과의 억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로즈는 남편을 만나기 전 친구 애즈라를 먼저 만났다. 애즈라는 전남편이 입주 가사도우미였던 한 젊은 여자와 바람 피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한 후 지

난 4 년간 오히려 그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일은 나머지 친구들 모두에게 미스터리 그 자체로 남아 있었다. 로즈는 그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들의 사이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 사만다와 로렌까지 이 자리에 모두 도착했다. 모임의 주제는 역시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다. 특히 크리스탈 아카데미는 학년 별로 인원 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험 점수 및 기타 방과후 활동 점수가 기준에 충족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이는 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사만다는 로즈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신의 딸 엠마 Z 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반면 로즈는 엠마 Z 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인 딸 엠마 Q 가 엠마 Z 보다는 더 똑똑할지는 몰라도 경쟁심이라 실행력 면에서는 엠마 Z 보다 훨씬 약한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둘 중 한 명만 학교에 입학하는데 성공하는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둘은 이름만 같을 뿐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애즈라의 쌍둥이 아들들인 찰리와 아이단은 학교 공부보다는 축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 남편 또한 아이들 학교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영재들이나 가는 학교에 매달릴 이유는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자 은근 신경을 쓰기 시작한 상태였다. 또한 로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이전 보다 더 큰 딸인 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공부 머리를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샌더에게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테사를 희생해서라도 샌더를 영재 학교에 입학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테사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나름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듯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다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쓰려고 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아카데미를 둘러싼 부모와 아이들간의 경쟁이 팽팽해지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우정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고 수면 아래에 있던 비밀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네 친구들을 비롯한 그들의 자녀들의 시선에 따라 어른들의 경쟁심과 시기심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지 통찰력 있게 그린 이 소설은 영재 학교의 장단점, 시험과 경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저자 소개>

브루스 홀싱어 (Bruce Holsinger)는 구겐하임 펠로우십 수상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세 문학 학자이자 소설가이다. 전작으로는 『BURNABLE BOOK』과 『THE FIRED OF FIRE』가 있으며 중세 문학과 문화와 관련된 여섯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NON-FICTION



제목: PAPPYLAND: A Story of Family, Fine Bourbon, and the Things That Last
가제: 패피랜드 - 패피 반 윙클은 어떻게 전설의 위스키가 되었는가
작가: Wright Thompson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20년 11월 10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경영, 메모어

*** 아마존 관련 분야 1 위 / 뉴욕 타임즈 논픽션 베스트셀러 / 2020 년 11 월 최고의 책 선정**
*** 베스트셀러 THE COST OF THESE DREAMS 작가의 신작**
*** 억만장자도 구하기 힘든 전설의 미국 위스키, 버본(bourbon), 패피 반 윙클(Pappy Van Winkle)의 이야기**
*** 세계의 애주가들이 탐내는 켈터키 버본 위스키의 후계자 줄리안 반 윙클 3 세가 가업과 대대로 내려온 위스키의 맛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역사**

줄리안이 그의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23년산 패피 위스키는 한 병에 $3,000부터 시작한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위스키 병에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몰려들곤 한다. 하지만 40년 전, 그는 이러한 미래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위스키 시장의 침체 속에서 줄리안의 아버지는 가문의 오래된 양조장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고, 혼란의 시기를 보내던 중 사망하게 된다. 줄리안의 할아버지는 위스키 양조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인물로 **"우리는 좋은 버본을 만든다. 가능하면 이윤을 내고, 해야 한다면 손해를 보지만, 항상 좋은 버본을 만든다."**라는 신념을 가졌었다. 그러나 사업은 황무지에 도달했고, 줄리안은 가문의 유산을 손에서 놓아야 할 기로에 놓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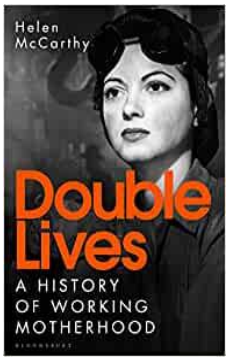
그때,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반 윙클 가문의 양조장에서 제조된 아주 특별한 위스키 배럴이 한 다국적 기업의 저장고에서 발견된 것이다. 줄리안은 그 위스키로 다시 가문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애주가들의 칭송을 받으며 반 윙클가의 위스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위스키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줄리안은 또 다른 도전을 맞닥뜨리게 된다. 기적과도 같이 발견한 오래된 배럴의 위스키는 다 동이 났고, 줄리안은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문의 맛을 보존할 길을 찾아야 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저자 라이트 톰슨은 줄리안의 윙맨으로 초대되어 그가 겪은 도전과 고난,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켄터키의 위대한 버본 위스키 패피 반 윙클의 유산, 그 맛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졌던 신념까지, 모두 지켜내며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이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장인정신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저자 소개>

라이트 톰슨은 ESPN 시니어 기자이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COST OF THESE DREAMS의 저자이다. THE COST OF THESE DREAMS는 역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현재 아마존 스포츠 에세이 분야 1위 도서이다.



제목 : DOUBLE LIVES

가제 : 워킹맘들의 역사

저자 : Helen McCarthy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4월 16일

분량 : 560 페이지

장르 : 여성, 역사

*** "저자는 19 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직장 생활과 모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훌륭한 책을 썼다."- 「리터러리 리뷰」의 비키 프라이스**

*** "워킹맘들에 관한 지난 180 년 간에 걸친 '새로운' 문화사"-더 타임즈**

오늘 날 영국에서는 자녀를 둔 여성들 중 4 분의 3 이 취업 상태이며 출산 후에도 계속 유급 노동을 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특징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한 세기 전만해도 일하는 엄마, 즉 '워킹맘'은 아주 소수였고 많은 직업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배제되었으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수당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저자 헬렌 맥카시는 바로 한 세기 전부터 시작해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고 그 결과 영국 사회와 경제에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19 세기 무렵 영국의 어머니들 중 4 분의 3 은 빅토리아 시대를 맞아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수입을 얻기를 원했고 사회에서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워킹맘들은 낮은 임금과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 빽빽한 근무시간,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 그렇다면 20 세기는 어땠을까? 역시 20 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국 시민들과 심지어는 유명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단체들까지 여성들의 임무는 육아라고 생각했었다. 때문에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 여성들은 '어머니'라는 일과 직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갇혀 있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좋은" 엄마였고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여성은 "나쁜" 엄마였다. 하지만 저자는 21 세기인 지금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집은 여전히 엄마와 아내들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표본 역시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풍부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19 세기 맨체스터의 연기 나는 굴뚝부터 오늘날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에 이르기 까지 워킹맘들의 생활과 그 역사를 훑어본다. 저자는 일하는 엄마의 일상과 재정적 독립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욕구, 가정과 가족 너머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인식 되었는지 찬찬히 추적한다. 이 획기적인 '새로운 문화사'는 우리의 과거를 재평가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어떻게 발전 해왔는지 앞으로 남은 더 큰 과제들은 무엇

인지 새롭게 묻는다. 생생하고 호소력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역사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게 해줄 책이다.

<목차>

서문

1 부 불일치, 1840-1914

1 장. 빵과 버터

2 장. 악의 필수 요소

3 장. 두 주인을 섬기다

2 부 시민, 1914-1951

4 장. 일시적인 애국자

5 장. 현대의 어머니

6 장. 예비군

7 장. 가방에 돈을 넣어라

(총 4 부 12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헬렌 맥카시 (Helen McCarthy)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현대 영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St John 's College 의 연구원이다. 그녀의 첫 번째 책은 『The British People and League of Nations』이며, 두 번째 책인 『Women of the World: The Rise of the Female Diplomat』은 2015 년 Political Book Awards 에서 Best International Affairs Book 을 수상했다

제목 : YOU'RE A MIRACLE

가제 : 나는 왜 이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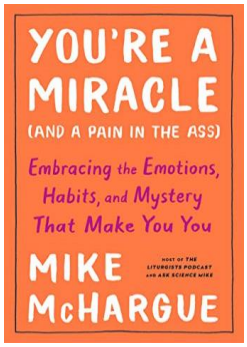
저자 : Mike McHargue

출판사: Convergent Books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나는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라는 사람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

이 책의 저자 마이크 맥하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해체 (deconstruction)의 시대'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지역 사회의 포근함을 잃고 슬퍼하며 유배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맥하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성, 젠더, 인종 등을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계관 역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양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과연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동안 이 세계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호모포비아, 유능 주의에 대해 맞서고 있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물론 이 흐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지 20년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과연 좋은 인간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과학자 및 철학자, 자기 계발 전문가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들 중 한 질문과 씨름해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혹은 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미룬 채 계속 하지 않고 있는가?'였다. 유명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한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수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그 사연들 중에는 왜 우리가 집 밖만 나서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 페이스북에서 온종일 정치 토론을 벌이고 있는지 밖에 나가 걷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등등 우리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의문들과 관련이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리의 순진한 믿음과는 달리 과학은 한 인간이 벌이는 모든 행동에는 경쟁심, 감정 및 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애청자들의 사연 중 가장 시급한 주제인 인간 관계, 윤리적 고민부터 시작해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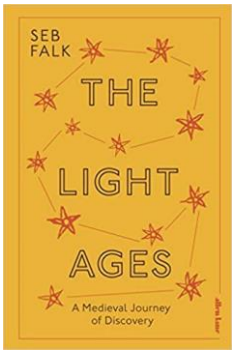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수용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목차>

저자의 노트 (당신은 이 장을 넘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제1장. 내가 왜 그랬을까?
전투: 나 VS 나
제2장. 당신의 뇌는 부리또다.
뇌의 구조와 그 구조가 중요한 이유
제3장. 피자와 포르노
어떻게 그토록 평범한 자극이 당신의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일까?
제4장. 복잡한 여행가방
감정들의 비밀스런 생애
제5장. 기계가 우리를 이기고 있다.
컴퓨터가 인류를 어떻게 길들이기 된것일까? 우리는 그에 어떻게 맞서면 될까?
제6장. 막대기와 돌
언어가 가진 파괴적인 힘
제7장. 쥐덫으로 가득 찬 상자
인간의 삶의 섬세한 춤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크 맥하그 (Mike McHargue)는 일명"Science Mike"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Ask Science Mike'와 'The Liturgists Podcast'의 팟캐스트 진행자이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영적인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제목 : THE LIGHT AGES

가제 : 빛의 시대 - 우리가 몰랐던 중세의 빛나는 지적 세계

저자 : Seb Falk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20년 9월 24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역사, 과학

*** 한 수도사의 발자취를 따라, 암흑의 시대라고만 여겨졌던 중세 시대의 과학과 예술을 비롯한 지적 세계를 탐구하는 책**

중세 시대는 과학에 대해서 만큼은 오랜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그 때도 과학적 사고를 하고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다. 이 책은 바로 오랜 편견과 무지 속에 갇혀 있었던 중세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조망해보는 책이다. 다소 묵직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낸 이 책은 아직 중세 과학사에 대해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역사 애호가부터 시작해 과학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중세 언어와 문학, 과학 및 철학, 천문학을 사랑하는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중세 시대는 지성의 암흑기라도 믿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이자 역사가인 셉 팔크는 고전주의 시대의 말과 르네상스 시대 사이에 과학적 진보가 한동안 멈춰 있었다는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라며 과감히 이 오랜 편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이른바 암흑 시대라고 알렸던 이 시기에도 태양을 여전히 솟아 오르고 있었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지성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반짝이는 사람들 중에 저자가 주목한 사람은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였다. 저자는 그가 남긴 글들의 일부와 저서들을 통해 존과 같은 사람들이 밤새 씨름 했던 고민들과 광범위하고도 흥미로운 질문들을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중세 시대에 살았던 이 존이라는 이 평범한 수도사가 어떻게 로마 숫자를 이용해 곱셈을 하는 것부터, 별자리를 찾고 별의 존재를 밝히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까지 대체 어떻게 과학을 배우고 수행했는지 생생히 들려준다.

14기 후반, 이 수도사는 비록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에 매료 되어있던 사람이었고 '중세 시대 가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과 연구는 중세 시대의 과학적 사고 세계관을 대표할만한 인물이었다. 저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그 시절, 중세 지식이 어떤 창조적인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전달 되었는지 주목하고 중세 시대에 작성된 우아한 도표, 화려하고 생생하게 표현된 시각 자료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중세 시대가 남긴 과학적 유산들은 단순히 그 시대만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또한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수도사 존이 남긴 저작들과 당시 일반적이었던 수준의 과학적 지식들을 살펴보면서 중세

수도사들이 이룬 과학적 업적이 현대 과학 기술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던 한 시대에서 한 남자가 지식과 자신의 신념, 믿음 사이에서 벌였던 투쟁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잊혀진 과거나 마찬가지인 중세 시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책이자 현대 예술 및 과학 문화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진중한 안내서이다.

<목차>

제1장 프롤로그 : 미스터리 원고
제2장 : 웨스트윅과 웨스트윅
제3장 : 수도원 시대
제4장 : 회랑에서 대학으로
제5장 : 계측기 개선
제6장 : 절벽 꼭대기로의 유배
제7장 : 주교의 십자구 전쟁
제8장 : 초서의 견습생
제9장 : 행성의 컴퓨터

<저자 소개>

셉 팔크 (Seb Falk)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이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교 졸업후 공무원과 교사로 근무한 후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BBC에서 'New Generation Thinker'로 지명된 후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저자는 이 프로그램들 중 일부에서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제목 : COLLECTIVE BARGAIN
가제 : 노동자들의 연대
저자 : Jane McAlevey
출판사: Ecco Press
발행일: 2020년 2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사회

*** 오랜 세월 동안 노조 연합의 지도자로 활동해왔던 제인 맥엘베이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인 노조 연합에 대한 이야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인종주의, 기업의 탐욕 및 왜곡된 정치 체제가 얼마나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병들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목도 해왔다. 이 책의 저자이자 노동 조합장인 제인 맥엘베이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힘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음 아닌 노동 조합이다. 오랜 세월 동안 노동 조합장, 환경 운동가, 정치 운동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노조야말로 오늘 날 국가조차 통제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진 기업 계급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1930 년대 이래 미국 노동 조합 연합은 뉴딜 정책 하에서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고 이와 함께 기업들 역시 비밀리에 노동 운동에 대항하여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결과 승자는 불행히도 바로 기업들이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조는 다시 복귀할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저 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고등 법원 시스템은 결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 기관이라 볼 수 없다. 1970년대 초반 부터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칭했던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 미 사법기관의 법적 해석 방식은 여전히 뉴딜 정책 시대와 함께 시민 권익이 이제 막 시작했을 무렵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극심한 빈부 격차 문제는 오늘 날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이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장 부유한 1%의 부자들이 미국의 모든 금융 자산의 46%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최하위 60%의 사람들은 아예 재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 빚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2017년에는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의 자산이 시간당 1,300 만 달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억만 장자들이 매일 25억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지구 절반의 인구가 그 해에 자산의 11%를 잃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프린스턴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공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곧 정치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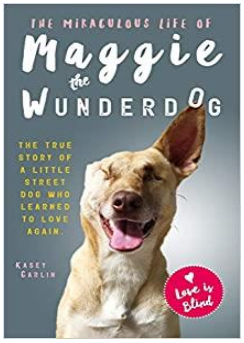
기업들과 수퍼 리치들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노조 연합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빈부 격차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인종차별, 성차별을 종식 시키고 기후 재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조 연합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조 연합을 꾸리고 있는 펜실베니아의 한 병원부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 임금 문제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교사들이 정부와 맞서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신 자유주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벌이라는 거대 권력 아래에 놓여 있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서문: 12 년의 자유 (거의 그런 것 같았지)
제1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길 수 있다
제2장: 누가 노동 조합의 씨를 말렸나?
제3장: 노조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할 모든 것이(대부분) 잘못되었다.
제4장: 노동 조합은 여전히 유의미한가?
제5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 조합을 만들어 냈는가?
제6장: 노조 연합을 재건하는 길
제7장: 노동자 연합이 힘을 얻으면 공화국도 힘을 얻는다

<저자 소개>

제인 맥엘베이 (Jane McAlevey)는 노동 연합 조직자이자 학자 및 작가이다. 조직자, 그녀는 현재 노동 및 고용 연구소 (University of Labor and Employment)의 버클리 노동 센터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선임 정책 연구원이며 잡지 'The Nation '의 파업 부문 특파원이자 잡지 'Jacobin'에 격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논설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녀는 노조 캠페인의 주최자로 계속 일하고 있으며 노사 분쟁에서 협상을 이끌고 주최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저서로는The Nation에서 "2012 년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선정 된 『Raising Expectations (and Raising Hell): My Decade Fighting for the Labor Movement』가 있다.



제목 : THE MIRACULOUS LIFE OF MAGGIE THE WUNDERDOG

가제 : 매기 트래블 - 레바논에서 영국까지,'살아남은 개' 매기의 탈출기

저자 : Kasey Carlin

출판사: Mirror Books

발행일: 2020년 6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에세이

*** 422,700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화제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인공 개 매기에 관한 실화**

*** "개에 관한 이야기로 감동을 받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개 매기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유어 도그 매거진」**

*** "이 이야기는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베스트 매거진」**

개 '매기'는 사격 연습용 개였다. 처음 발견 되었을 때, 수의사는 매기가 평생 17번 이상 총에 맞은 경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기는 앞을 볼 수 없었고 한쪽 귀도 없었다. 살아있는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이 개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한 거리를 떠돌다가 구출되어 2018년 영국으로 왔다. 이 책의 저자이자 매기의 반려인인 케이시 칼린을 만나기 전 매기는 뱃속의 강아지 때문에 배가 잔뜩 나와 있었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앞을 못 보는 대신 사람들의 걸음 소리에 의지해 겨우 끼니를 찾고 있었다. 처참한 눈과 귀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러워 보였고 턱은 부러져 있었으며 몸을 만지면 곳곳에서 총알이 만져졌다. 하지만 매기는 다행히도 베이르투 외곽의 한 시골에서 개 보호소를 운영 중이던 후세인 덕분에 겨우 생명 줄을 잡았다. 어느 날 후세인의 친구가 그에게 한 개가 비참한 상태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다급히 알린 것이다. 후세인은 연락을 받자마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개를 구조해 쉼터로 데려왔다. 그는 대체 매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누군가가 무작위로 매기를 상대로 사격 연습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쉼터로 가는 길 매기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심하게 사람을 경계했고 후세인은 매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앞으로의 치료 비용이었다.

후세인은 고민 끝에 페이스북 개 구조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고 그의 글을 본 '록사나'라는 영국인 여성은 충분한 돈을 모금한 후 매기를 영국으로 데려와 동물 복지 단체를 통해 입양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그 공고를 본 케이시는 매기를 집으로 데려와 온종일 품에 안고 매기가 가진 아름다움과 따스함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가 동물과 느낀 교감 중 가장 감동적인 감정이었다. 이후 매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 되어 많은 팬들까지 가지게 되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회복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기 역시 가는 곳마다 기쁨과 사랑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있는 그대로 사랑 받는 법을 배운 한 작은 강아지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이다.

<저자 소개>

케이시 칼린 (Kasey Carlin)은 매기를 비롯한 세 마리의 개들과 함께 영국 서섹스에 살고 있다.